

# 남도한바퀴, 3월부터 꽃내음 가득 봄 여행코스 운영

### 최소 1만 2천900원 합리적 가격... 전남도 대표 관광상품 곡성·구례 봄꽃여행, 신안·함평 슬로우여행 등 23개 테마

전라남도가 봄나들이 시즌을 맞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봄 여행코스를 출시해 본격적인 상춘객 물이에 나섰다. 남도한바퀴는 버스를 타고 다양한 여행코스를 최소 1만 2천900원의 합리적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전남도 대표 관광상품이다. 코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알찬 해설까지 곁들여져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다.

이번 봄 코스는 아름다운 봄꽃과 정원, 수려한 섬과 바다, 남도 미식 등을 만끽할 수 있는 23개 테마코스로,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운영한다.

봄 정취 가득한 주요 코스로 ▲섬진강 벚꽃 흠날리는 곡성·구례 봄꽃여행 ▲꽃과 예술, 숲길이 어우러진 신안·함평 슬로우여행 ▲봄꽃과 다도해 오션뷰가 일품인 고흥 속심·금당8경 여행 ▲선암사와 오동도·향일암으로 이어지는 여수·순천여행 ▲조륙에 잡기는 담양·장성 숲강스여행 ▲레트로 감성 가득한 목포·무안 시간여행 등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5월 개관하는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코스도 신규로 포함돼 남도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수려한 영산강 뷰까지 관람할 랜드마크로, 여행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는 전남 곳곳의 매력적인 명소를 한데 연결해 버스로 편하게 즐기는 여행 상품"이라며 "남도한바퀴 봄 여행코스와 함께 전남의 봄을 한껏 만끽하고, 좋은 추억도 많이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도한바퀴 봄 여행코스의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www.kumho\_around.com)이나 콜센터(062-360-8502)에서 안내받고 예약할 수 있다. /염선호 기자



남도한바퀴는 계절마다 색다른 코스를 운영해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탑승객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2만 3천여 명이 이용했다. /염선호 기자

## 합계출산율 0.89명... 5년 연속 광주 자치구 1위

### 출산축하금 확대·택시·병원 동행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 성과

광주 동구가 합계출산율 0.89명으로 지난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동구의 합계출산율은 0.89명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지난해 광주시 전체 합계출산율은 0.76명이었으며, 자치구별로는 서구 0.65명, 남구 0.73명, 북구와 광산구가 각각 0.79명을 기록했다. 동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으로 광주 자치구 중 합계출산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동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끝단타입'으로 보고, 경제·사회·의료적 지원을 동시에 강화해 출산 친화적 지역 환경을 한층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구는 올 한 해 동안 3개 추진 과제 아래 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며 총 38,024백만 원을 투입한다.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보육 및 양육 지원을 통한 양육 부담 완화, 의료 지원을 통한 모자 건강 증진을 축으로 삼아, 출산축하금과 같은 직접적인 경제 지원부터 공보육 및 돌봄 인프라 확충, 부모 교육·육아 지원 프로그램, 임신부·

영유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지원까지 임신·출산·양육의 전 단계를 촘촘히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동구는 신생아 바구니행 카시트 및 돌상(백일상) 대여, 동구 육아카페 프로그램 운영, '동구 맘 택시' 운행 등 동구만의 특화된 출산·양육 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을 종전 둘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서 첫째아 출생 가정과 12개월 미만 영아 입양 가정까지 확대해 초기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23년 광주 자치구 최초로 시행한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의 명칭을 '우리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로 변경하고, 이용 대상을 만 4세 이상에서 0세 이상 영유아까지로 넓혀 더욱 촘촘한 돌봄 공백 해소를 나섰고, 이와 함께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을 통해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두루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행복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 광주시,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돕는다

### 임대주택 보증금 평균 750만원 지원... 최대 6년간 거주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평균 750만원 내외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단 자립의지 강화를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월 평균 17만원), 입주보증금(70만원)은 자부담해야 한다. 계약 기간은 2년 단위이며, 입주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중장기 생활안정이 가능하다.

주거공간 제공과 함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상담과 물품 지원을 제공하며,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취업 훈련·학습

비용 지원, 자녀 양육 공백 때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으나, 1회차 집중 신청 기간은 오는 3월6일까지다.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를 결정하며, 심사는 3월13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다.

입주 상담 및 신청은 광주동구가족센터(062-419-19650, 010-6847-6050)로 하면 된다. /전광춘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한부모 주거 지원사업' 입주자 46가구를 모집한다.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 내 임대주택 46호가 확보돼 있으며, 자립 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을

## 남구, 어린이 보육 '품질·공공성' 강화

### 영유아 양육 가정·어린이집 보육사업 지원

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돌봄 책임 강화 정책 기조를 따르는 것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면서 공공 보육의 기반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어린이집 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241억 1,800만원 가량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해 민간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에서 운영 중인 관내 어

린이집 97곳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도모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다.

해당 예산은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장애인 전문 및 농촌 어린이집 차량 운영, 급식 위생 관리 등의 용도로 쓰인다.

아울러 올해부터 구비를 투입해 어린이

집 내 감염병 발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비 지원 사업도 처음으로 실시한다.

남구는 또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340억 4,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갓 태어난 신생아부터 6세에 해당하는 관내 영유아는 7,320명 가량으로 파악되며, 이들 가정에는 가정 양육 수당과 부모 급여 수당, 영유아 보육료, 누리과정 보육료,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를 지급된다. /임채일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 보육 품질 및 공공성 강화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남구는 26일 "무상보육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비와 시비, 구비 581억 6,200만 원을 투입한다"면서 "해당 예산으로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과 영유아 가정 양육 지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육 품질 및 공공성 강화 대책

## 북구, 광주 자치구 유일 '청년성장프로젝트' 2년 연속 추진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포함 4억 4천여만 원 확보

함께 성장하는 북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구직 단념 예방 및 의욕 고취 ▲청년 취창업 역량 강화 ▲노동시장 유입 활성화 등 3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 4억 4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15~39세 청년 2천여 명에게 밀착 상담·취·창업 기본 교육·

경력(재)설계·실무교육 등 분야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1대1 상담을 통해 참여자를 미취업청년, 이직희망청년, 창업청년 등으로 구분한 뒤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과정을 설계해 실효성을 높인다.

정규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는 유관기관

연계, 청년 고용정책 안내 등 사후관리 서비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교육은 지난해 북구가 행복어울림센터 5층에 조성한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용봉'을 중심으로 청년 어울림플, 청년센터 등 북구의 청년 친화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은 북구 청년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인 (사)지역고용정책연구원(☎ 062-526-060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 서구, 광고물 정비로 등하굣길 안전 강화

### 13일까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 현수막·간판 등 집중 단속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행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서구는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옥외광고협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출입문 300m 이내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선 200m 이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통학로 인근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음란·퇴폐적 내용과 통행 방해 요소,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위반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풍수해에 대비한 간판 안전 점검도 실시한다. 대형간판과 노후건물

설치 간판, 설치 후 3년 이상 경과 간판, 연결부위가 취약한 간판 등을 대상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살핀다. 점검 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불량 간판은 즉시 철거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개학을 맞아 통학로 주변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올해도 광주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되면서 청년 특화 구직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지난해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미취업 청년, 이직 준비 청년 등이 구직 의욕을 잃지 않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북구는 올해 '꿈을 향해 도약하는 청년!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